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

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12월 22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21(수) 오후 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6. 12. 21.(수)	담당부서	자동차항공과 원전산업정책과
담당과장	이원주 과장 (044-203-4320) 박재영 과장(044-203-5320)	담 당 자	위승복 사무관 (044-203-4321) 김현동 사무관(044-203-5315)

주형환 장관, 울산 수출현장 및 미래차 생산현황 점검

-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합동 「자동차 산업발전 위원회」 출범추진 -

- 고리 원전본부 방문, 안전 최우선 원칙하의 원전운영·건설 당부 -

□ **주형환 산업부 장관**은 21일 오후 **울산 현대자동차 공장과 수출 선적항을 방문**하여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, **자동차 수출 동향**과 전기·수소차 등 **미래차 생산 현장을 점검**함

*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연간 약 153만 대 생산, 105만 대를 수출('15년 기준) 하였으며, 약 3만 4천 명이 근무 중

○ 금년도 신흥국 시장침체, 파업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도, 지난 달 **17개월만에 자동차 수출을 증가세로 전환***된 바, 이러한 **수출회복의 모멘텀을 유지**할 수 있도록 **배전의 노력**을 당부

* 수출증감률(%) : ('16.5) △8.7→(6) △12.3→(7) △14.5→(8) △15.1→(9) △23.9→(10) △12.0→(11)1.5

□ 최근 세계 보호무역 움직임, 전기차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 등 급변하는 시장 여건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업계와 정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라고 전제하고,

①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빠르고 과감한 투자, ②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공장 구축 ③ 선진적 노사관계 정립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,

○ **미래 자동차 경쟁력 강화와 통상이슈 대응, 규제개선 등을 위해** 산업부 장관, 자동차 업계 대표, 전문가가 참여하는 **민관합동 「자동차 산업발전 위원회*」 출범을 추진**하겠다고 밝힘

*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 구성(안) : 산업부 장관(위원장), 현대차·기아차·한국GM·르노삼성·쌍용 등 업계 CEO, 자동차협회장, 연구기관장 등

□ 먼저, 친환경차·자율차로 진화하고 있는 **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우리도 빠르게 대응**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,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○ 정부는 친환경차 시장 확대를 위해 보급 인센티브 확대, 충전인프라 확충 등 다각적인 정책*을 강력하게 추진중으로, 올해 **전기차 누적 1만대 보급을 달성**하는 등 **전기·수소차 수요가 점차 증가**하고 있고,

① 구매보조금 상향(1,200만원→1,400만원) ② 행정·공공기관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 확대(25%→40%) ③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④ 전기차 전용보험 및 번호판 도입 ⑤ 3년간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 요금 50% 할인 등

○ **자율주행차**도 카메라 라이더 등 **핵심부품 국산화**를 위한 **대형 국책사업을 추진**하고 있다고 소개

*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 개발사업: '17~'21(5년) 총사업비 1,455억원('17년 89억 반영)

○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**업계도 R&D와 투자를 확대**하여 **소비자가 사고 싶은 경쟁력 있는 다양한 모델**을 **개발하여 세계 친환경차 시장을 주도**해 나가자고 주문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12-21 13:00:39

□ 또한, 다양한 부품과 공정관리가 핵심인 자동차 산업은 생산공정의 스마트화를 통한 제조 경쟁력 확보가 어느 업종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, **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**해 나가자고 당부

□ 마지막으로, 세계 보호무역 움직임 등에 따른 **통상·규제·노사 문제**와 같은 다양한 이슈에 **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**을 강조하면서,

○ 업계 CEO,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**민관합동 「자동차 산업발전 위원회」를 조만간 출범**시켜 미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힘

□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은 11월부터 그간 **파업으로 차질을 빚었던 수출과 생산 만회를 위해 노사가 함께 적극 노력**하고 있으며, 내년에도 새로운 수출시장 발굴과 기술투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힘

○ 또한, 현대자동차는 내년까지 **570여개 협력업체의 스마트공장화**를 지원하는 등 스마트공장 확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언급

□ 한편,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울산 현대차 공장 방문에 앞서 고리 원자력본부를 방문하여 12.20일 상업운전에 돌입한 **신고리 3호기 현장을 점검**하고 준공에 기여한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함

○ 주 장관은 최근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, **원전 안전성을 지속 강화**하고, **'안전 최우선' 원칙**에 따라 원전 운영·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,

○ 9.12 지진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, 한수원의 모든 임직원들이 긴장감을 갖고, **어떠한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출 것**을 당부함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참고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이원주 과장(044-203-4320), 위승복 사무관(044-203-4321), 원전산업정책과 박재영 과장(044-203-5320), 김현동 사무관(044-203-531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울산 현장방문 개요 및 일정

□ 목 적

○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 선적항과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, 전기·수소차 생산현장 점검독려

○ 신고리 3호기 준공 축하, 참여 근로자 격려 및 안전 최우선원칙 하의 원전 운영·건설 당부

□ 일시 및 장소

○ 2016. 12. 21(수), 신고리 원자력3호기 현장 (울산 울주군 서생면)
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현장 (울산 북구 양정동)

□ 주요 참석자

○ 산업부 장관, 시스템산업국장(현대차 일정), 원전국장(신고리 일정)

- (현대차 방문) 현대차 윤갑한 대표이사 사장 등
- (신고리 3호기 방문) 한수원 부사장 및 고리본부장 등

try of Trade, try and Energy

□ 방문일정

시 간		주 요 내 용
13:00~15:00	120′	○ 고리 원자력본부 방문 - 경로 : 고리본부 → 신고리 3호기(터빈룸 → 중앙제어실 →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) - 내용 : 신고리 3호기 현장점검 및 관계 근로자 격려
15:00~16:00	60′	○ 이동(신고리 #3 → 울산 현대차 공장)
16:00~16:50	50′	○ 현대차 공장 시찰 - 경로 : 수출선적 부두 → 제5공장(수소차) → 제3공장(전기차) - 내용 : 친환경차 생산 및 수출 현장 점검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12-21 13:00:39